

# 古代 中國語의 二重目的語文 研究

— 〈韓非子〉의 예를 중심으로 —

李 滢 鎭

(人文大 中語中文學科)

## 〈 目 次 〉

1. 序言	3.3 直接目的語
2. 二重目的語文의 名稱과 定義	4. 型式上의 分類
3. 二重目的語文의 構造 分析	4.1 基本型式
3.1 述語動詞	4.2 變形型式
3.2 間接目的語	5. 結語

## 1. 序言

二重目的語文<sup>1)</sup>의 두 개 목적어는 통사구조상 어떤 어법관계를 가지지 않는데, 문장에서는 동사를 통해 서로 관련을 맺게 된다.

- (1) 君賜之玉環. 30.13.20  
(군주는 그에게 玉環을 하사하였다)

예문(1)에서 동사 '賜'는 '之'와 '玉環'이라는 두 개의 목적어 가지는데, 첫 번째 목적어 '之'와 두 번째 목적어 '玉環'은 서로 직접적인 구조관계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두 개의 목적어는 동사 '賜'에 의해 관계를 갖게 되어 '군주는 그에게 玉環을 하사하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중목적어문이라 하면 예문(1)과 같이 「……에게……

1) 중국의 原用語로는 '雙賓結構' 또는 '雙賓語式'이란 명칭이 지배적이다. 본고는 이를 번역하여 二重目的語文이라 부르고자 한다. 자세한 설명은 제2장에서 논의한다.

을(를) 주다」라는 '授與'의 의미를 표현하는 문장으로 常用되는데, 물론 이런 문장이 전형적인 이중목적어문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授與'의 의미뿐 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나타내고 있다<sup>2)</sup>

따라서 이중목적어문에 사용되는 동사의 의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동사와 두 개 목적어와의 관계와 각각의 구조에 대한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고대 중국어에서는 강조 등의 의미를 표시할 때 흔히 목적어의 전치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중목적어문의 두개의 목적어도 이런 前置 현상이 일어나므로 형식상의 특징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대중국어에 나타나는 이중목적어문의 의미와 구조를 분석하고 사용되는 형식을 살펴봄으로써 사용빈도와 용도를 알아보고, 나아가 당시의 언어 규칙 및 현상을 고찰하는 것이며, 또한 기존의 이중목적어문에 관한 이론을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검토·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선진시기의 말기에 출현한 《韓非子》를 定量分析하여 그 예를 제시하는데 《韓非子》가 그 當時의 언어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어학적인 측면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고<sup>3)</sup>, 《韓非子》의 문형이 선진시대의 다른 책에서 나타나는 문형과 같은 범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한다<sup>4)</sup>.

본고에서 사용하는 《韓非子》의 본문은 《韓非子索引》에 있는 《韓非子原文》<sup>5)</sup>을 底本으로 한다<sup>6)</sup>

2) 이 점에 관해서는 本稿 3.1.1을 참고

3) 《韓非子》는 文體가 論辯體의 문장으로 문장의 구조를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각종 寓言과 歷史的인 故事를 많이 인용하고 있어 當時의 언어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春秋戰國時代는 《春秋》의 기록이 시작되는 B.C.722년을 춘추시대의 기점으로 보면, 秦이 천하통일(B.C.221년(실제 東周가 秦에게 멸망한 시기는 B.C.256년임))을 한 때까지 약 500년간이 된다. 따라서 《韓非子》가 戰國時代 末期에 출현한 책이므로 《韓非子》의 문형이 모든 선진 문형에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書面語로 알 수 있는 선진의 언어는 그리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추정된다.

5) 본고에서 사용하는 《韓非子原文》은 《韓非子》연구의 底本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宋 乾道本을 底本으로 하고, 기타 다른 판본인 道藏本·正德本·汗評本·趙用賢本·張鼎文本·張榜本·凌瀛初本과 先秦의 여러 典籍을 참고로 交勘하였고, 아울러 여러 학자의 견해를 참고로 하고 있어, 《韓非子》를 해석함에 있어서 비교적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 2. 二重目的語文의 名稱과 定義

논의에 앞서 먼저 二重目的語文에 관한 기존의 몇몇 견해를 살펴 명칭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定義에 대해 필자의 입장을 정리한다.

하나의 동사가 뒤에 두 개의 목적어를 대동하는데, 그 중 하나의 목적어는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直接賓語'라 한다. 다른 하나의 목적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間接賓語'라 하는데, 이것이 '雙賓語'式이다. 이러한 문형은 고대와 현대의 중국어에 모두 있다.

(一個動詞後面帶了兩個賓語, 一個賓語是指物的, 稱直接賓語; 一個賓語是指人的, 稱間接賓語; 一個賓語是指人的, 稱間接賓語; 這就是"雙賓語"式. 這種句式古今漢語都有. 錢小運·吳金華, 《古漢語概要》, 江蘇人民出版社, 1983, p.257)

'雙賓語句型'은 어떤 동사가 두 개의 목적어 대동할 수 있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間接賓語(近賓語)이고 사물을 가리키는 直接賓語(遠賓語)이다. 일반적으로 間接賓語는 앞에 있고, 直接賓語는 뒤에 있다.

(這類是雙賓語句型, 有些動詞可以帶兩個賓語, 指人的是間接賓語(近賓語), 指物的是直接賓語(遠賓語), 一般是間接賓語在前, 直接賓語在後. 董治國 編著, 《古代漢語句型大全》, 天津古籍出版社, 1988, p.128)

'雙賓語'는 술어동사가 두 개의 목적어를 대동하는 어법현상을 가리킨다. 그중 하나의 목적어는 述語動詞에 가까이 있고, 다른 하나는 述語動詞와 멀리 떨어져 있다. 구조상에서 말하면 前者를 '近賓語', 後者를 '遠賓語'라 부른다. 의미관계에서 설명하면 '遠賓語'는 종종 述語動詞가 언급하는 대상으로 直接賓語라고도 부른다. '近賓語'는 종종 直接賓語와 상관되는 사람이거나 사물로 間接賓語라고도 한다.

(所謂雙賓語, 是指謂語動詞帶兩個賓語這一語法現狀. 其中一個賓語靠近謂語動詞, 一個遠離謂語動詞. 從結構上說, 前者叫近賓語, 後者叫遠賓語; 從語義關係上講, 遠賓語往往是謂語動詞所涉及的對象, 又叫直接賓語, 而近賓語往往是與直接賓語相關的人或事, 所以又叫間接賓語. 許仰民 編著, 《古漢語語法》, 河南大學出版社, 1988, pp.248-249)

6) 《韓非子原文》의 권명과 예문의 표시방법은 拙稿 「고대 중국어의 능보문연구 (1)」의 주8)에 사용된 방법을 따랐다. (인문학연구 제2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p.275)

上述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장의 위치상 첫번째 목적어와 두 번째 목적어는 相異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를 현대중국어의 개념<sup>7)</sup>과 비교하여 함께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書名	첫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
《新著國語文法》	次賓位	正賓位
《現代漢語》(修訂本)下	間接賓語 近賓語	直接賓語, 遠賓語
《古漢語概要》	間接賓語	直接賓語
《古代漢語句型大全》	間接賓語(近賓語)	直接賓語(遠賓語)
《古漢語語法》	近賓語, 間接賓語	遠賓語, 直接賓語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次賓位’, ‘近賓語’, ‘間接賓語’는 사람을 가리키고, ‘正賓位’, ‘遠賓語’, ‘直接賓語’는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명칭상의 異稱은 존재하지만 그 내용은 같다고 할 수 있다<sup>8)</sup>.

黎錦熙의 ‘次賓位’, ‘正賓位’는 서구언어의 문법이론인 ‘格(case)’을 도입하여 설명한 것인데 중국어는 어순을 통해 ‘格’이 정해지는 것이지 서구언어처럼 형태소에 의해 ‘格’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용어 자체가 문법범주를 달리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近賓語’와 ‘遠賓語’는 동사와 목적어의 위치를 원근에 근거한 명칭으로 자세한 설명이 없을 경우, 명칭 자체가 나타내는 표현으

7) 어떤 종류의 타동사는 사람과 사물간에 어떤 사물을 주는 것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送’, ‘寄’, ‘贈’, ‘給’, ‘賞’, ‘教授’, ‘吩咐’, 등은 종종 두개의 명사를 대동하고 있고 목적어가 되는데, 이를 ‘雙賓語’라고 한다. 이런 이중목적어를 대동하는 문장안에는 두개의 ‘賓位’에 있는 명사가 있는데, 이런 ‘賓位’ 중 주어지는 사물에 속하는 것을 ‘正賓位’라 하고, 사물을 받는 사람에게 속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것을 ‘次賓位’라고 한다. (有一種外動詞, 表示人與人之間交接一種事物的, 如‘送’, ‘寄’, ‘贈’, ‘給’, ‘賞’, ‘教授’, ‘吩咐’, 等, 常帶有兩個名詞作賓語, 叫做‘雙賓語’, 這種帶雙賓語的句子裏面, 就有兩個在賓位的名詞, 這兩個賓位中, 屬於被交接之事物叫‘正賓位’, 屬於接受事物之人的叫‘次賓位’.) (黎錦熙, 《新著國語文法》, 臺灣商務印書館, 民國58年, p.34)

어떤 타동사가 표시하는 동작은 이미 사람을 언급하는데, 또 사물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의 뒤는 ‘雙賓語’를 대동할 수 있다. 두개 목적어간에는 구조 관계가 없는데 이러한 문형을 ‘雙賓句’라 한다. (有的及物動詞所表示的動作既涉及人, 又涉及物, 因而它後頭可以帶雙賓語, 兩個賓語之間沒有結構關係, 這種句型叫雙賓句, …… 離動詞近的賓語一般指人, 叫間接賓語, 也叫‘近賓語’; 離動詞遠的一般事物, 叫直接賓語, 也叫‘遠賓語’.) (黃伯榮·廖序東 主編, 《現代漢語》(修訂本)下, 甘肅人民出版社, 1987, p.388)

8) 명칭상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現代中國語의 雙賓語文 研究》(林明花, 成人 碩士論文, 1990, pp.17-21)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람.

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즉 이중목적어문은 일반적인 어순과 내용이 동사 뒤에 사람을 가리키는 목적어가 위치하고, 다음 사물을 가리키는 목적어가 위치하는데, 전치현상이 일어날 경우 '近賓語'와 '遠賓語'는 내용상의 구분이 모호해 진다.

(2) 宋石遺衛君書. 31.23.7

(송석은 위군에게 편지를 보냈다.)

(3) 今王信愛子之, 將傳國子之. 35.12.24

(왕은 자지를 신임하여 장차 子之에게 나라를 전하려 하였다.)

예문(2)1에서 '近賓語'는 '衛君'으로 사람을 가리키고, '遠賓語'는 '書'로 사물을 가리킨다. 그러나 예문(3)은 사물을 가리키는 목적어가 전치되어, '近賓語'는 '國'으로 사물을 가리키고 '子之'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그러나 '衛君'과 '子之'는 동작을 받는 대상자이고, '書'와 '國'은 동작의 지배를 받는 대상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른 것이다. 즉 어순이 바뀌어도 '近賓語'와 '遠賓語'는 거리의遠近에 근거하므로 이중목적어문의 일반적인 내용을 구분할 수 없게 된다.

'間接賓語'와 '直接賓語'는 영어의 'indirect object'와 'direct object'를 번역한 것인데, 중국어의 모든 상황에 대응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고는 용어의 친숙도와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이를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로 번역하여 사용<sup>9)</sup>하기로 한다

또한 定義에 관한 설명을 살펴보면 거의가 大同小異하며, 명칭을 설명할 때 언급한 현대의 이중목적어문의 개념과도 비슷하다. 이를 요약해 보면, 하나의 술어동사가 두 개의 목적어를 지배하며, 두 개 목적어간에는 어법관계를 갖지 않으며, 하나의 목적어는 사람을 가리키고 다른 하나의 목적어는 사물<sup>10)</sup>을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한다.

9) 서술의 편의를 위해 間H, 直H으로 약칭하여 사용한다.

10) 古代 文型에서도 間H에 사물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與魏質以安其心, 從韓而伐趙'(魏나라에게 불모를 주어 그 마음을 안심시키고 韓과 연합하여 趙를 공격하였다)이다. 그러나 이런 예문은 많이 출현하지 않는다.

참고로 현대 文型에서 첫 번째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을 가리키지만 사람이 아닌 사물도 올 수 있다. (예: 他借圖書館一本書).

이상의 설명으로 미루어, 二重目的語文의 통사적 형식은 하나의 술어동사가 두 개의 목적어를 대동하며, 각각의 목적어는 술어동사와 독자적인 어법관계를 가지는 문형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에 의미적인 면을 보충하자면 첫 번째 목적어는 동작이나 행위를 받는 '與事'<sup>11)</sup>이고 두번째 목적어는 동작이나 행위의 지배를 받는 '受事'인 문형이다.

### 3. 二重目的語文의 構造 分析

#### 3.1 述語動詞

##### 3.1.1 意味

二重目的語文의 述語는 他動詞가 쓰이는데, 모든 타동사가 二重目的語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한정된 동사만이 이중목적어를 취한다.

(4) 太公望誅之. 34.11.78

(太公望의 그(狂飡)를 주살 하였다.)

(5) 和又奉其璞而獻之武王. 13.1.2

(和氏는 또 그 옥돌을 받들어 그것을 무왕에게 바쳤다.)

위의 예문(4)-(5)는 타동사가 쓰이고 있지만, 예문(4)의 동사 '誅'는 대상을 표시하는 하나의 목적어를 취할 뿐 동작 행위를 받는 대상(사람)인 다른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문(5)의 동사 '獻'은 이중목적어를 취하고 있다. 이와같이 이중목적어문의 동사는 전체 文章中 표현의 중점이 두어지는 부분으로 이중목적어문임을 辨別할 수 있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11) '與事'란 문형을 의미적으로 분석할 때 쓰이는 용어로, 二重目的語文中 授與物(直接目的語)를 받는 受與者(間接目的語)를 표시한다.

예) 宋石 遺 衛君 書. 《韓非子·內儲說下六微》  
 施事 行爲動作 與事 受事 (意味의인 분석)  
 主語 述語動詞 間接目的語 直接目的語 (統辭의인 분석)

二重目的語文에 사용되는 동사를 의미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韓非子》에서 출현하지 않는 動詞도 참고로 함께 附記한다.<sup>12)</sup>

의미	《韓非子》	參考 動詞
授與	子, 賜, 遺, 與, 授, 傳, 假, 假, 致, 封	子, 賜, 遺, 歸, 施, 與, 贈, 送, 授, 寄, 給, 賞, 分, 付, 輸, 進, 輸, 奉, 讓, 奏, 貸, 借, 假, 資, 致, 還, 易, 錫, 共, 反, 封, 投, 屬, 許, 貽, 詒, 餼, 賞, 畀, 供, 降, 償, 胙, 丐, 匈, 厘, 饋 등
告示	告, 教, 言, 問	告, 示, 教, 言, 語, 問, 數, 說, 喻, 訟, 傳, 訓, 報, 謁, 申, 曉喻, 指示, 愬, 誨, 褒, 貶 등
奪取	奪, 得, 受, 收	奪, 取, 賈, 得, 求, 受, 收, 貸, 罰, 竊, 要, 賦 등
要請	請	請, 求, 要 등
稱謂	謂	謂, 稱, 名, 呼 등
使役	入	生, 飲, 入, 負, 舍, 致 등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중목적어문의 동사는 授與, 告示, 奪取, 要請, 稱謂, 使役의 뜻을 표시하는데 이에 관한 예를 살펴본다.

### 3.1.1.1 授與類

동사는 授與, 還給, 借用, 賜與 등의 의미를 표시하는데, 授與를 표시하는 二重目的語文안의 間目은 授與받는 受事者를 표시하고, 直目은 수여되는 授與物을 표시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間目은 사람을 가리키고 直目은 사물을 가리킨다. 直目은 원래 主語에게 있었는데 동사가 대표하는 동작을 거쳐 間目에게 移動된다.

12) 본 연구에서 동사를 수집하는데, 주로 참고로 한 논저는 다음과 같다.  
 董治國 編著, 《古代漢語句型大全》, 天津古籍出版社, 1988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1992  
 余志鴻, 《試談漢語裏的雙賓語》, 上海市語文學會編, 《語文論叢》, 1983年 2期  
 呂慶業, 《試論古漢語的雙賓結構》, 《語言文字學》, 1985年 2期

- (6) 君子之地. 智伯必驕而輕敵. 鄰邦必懼而相親. 22.8.13  
 (임금께서는 그에게 땅을 (떼어) 주십시오. 智伯은 반드시 교만해져서 적을 輕視하게 될 것이며, 이웃의 국가들은 모두 그가 두려워서로 가까워질 것입니다.)
- (7) 或與之天下而不取. 44.3.5  
 (또 그에게 천하를 준다했지만 받지 않았다.)
- (8) 爲人臣者陳而言. 君以其言授之事. 7.2.5  
 (신하된 자가 진언을 올리면 군주는 그 말을 근거로 그에게 임무를 부과하였다.)
- (9) 若受我幣而假我道. 則是寶猶取之內府而藏之外府也. 10.3.18  
 (만약 나의 물건을 받는다면 나에게 길을 빌려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마치 보물을 안에 있는 창고에서 꺼내어 밖에 있는 창고에 넣어 두는 것이다.)
- (10) 雖嗜魚. 此不必致我魚. 35.10.18  
 (비록 생선을 좋아하나 (재상의 지위를 잃고 나면 다른 사람들도) 더 이상 내게 생선을 받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11) 今王欲傳之子之. 35.12.61  
 (왕은 子之에게 천하를 전하려고 하였다)

### 3.1.1.2 告示類

동사가 告示, 傳達, 教示 등의 의미를 표시하는데,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알리거나 전달하는 등의 뜻을 표현하며, 주어가 間目에게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直目을 전달한다.

- (12) 太宰因誠使者: 無敢告人吾所問於女. 30.46.13  
 (재상은 그로 인해 사자(少庶子)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대에게 물은 것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훈계하였다)
- (13) 伯樂教其所憎者相千里之馬. 教其所愛者相驂馬. 23.5.1-2 (2개)  
 (백락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천리준마를 감별하는 법을 가르쳤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노마를 감별하는 법을 가르쳤다.)
- (14) 襄疵常輒聞而先言之魏王. 32.57.4  
 (襄疵는 언제나 정보를 얻고서 즉시 위왕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



### 3.1.1.3 奪取類

동사가 奪取, 取得, 獲得 등의 의미를 표시하며, 주어는 間目으로 부터 直目을 얻게 된다. 直目は 원래 間目に 속해 있었던 것으로 동작 행위를 거쳐 주어에게 귀속되거나 또는 주어에게 귀속되지 않더라도 間目에게서는 離脫된다.

- (15) 往年臣爲君治鄴, 而君奪臣璆. 33.23.23  
(지난해에 신은 주군을 위하여 鄴縣을 다스렸지만 주군께서는 신에게서 璆를 회수하셨다.)
- (16) 彼不假我道, 必不敢受我幣. 10.3.16  
(저들이 우리에게 길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나의 물건을 감히 받지 못할 것이다)
- (17) 所愛, 則能得之其主而賞之. 7.1.116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그(군주)에게서 그 권위를 얻을 수 있어 그들을 상준다.)
- (18) 文公受客皮. 21.2.2  
(晉文公은 客에게서 진귀한 가죽 예물을 받았다.)
- (19) 趙成侯以爲不慈, 奪之璆而免之金. 33.37.7  
(趙成侯가 (양거는)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는 자라고 여기고는 그에게서 인신을 회수하고 그에게서 관직을 면직하였다.)

### 3.1.1.4 要請類

동사가 要請, 要求 등의 뜻을 표시하는데, 어떤 일에 대해 요구 또는 청구의 의미를 표시한다.

- (20) 孫叔爲內鑄鐘, 鐘成, 內不敢擊, 使豎牛請之叔孫. 30.13.31  
(孫叔이 맹병에게 종을 만들라고 명했는데 종이가 완성되자 맹병은 감히 종을 치지 못하고 수우를 시켜 숙손에게 그 일(허락)을 청하게 하였다.)
- (21) 與之彼玃, 又將請地他國. 10.6.16  
(王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주면, (이것이 버릇이 되어) 또 다른 나라에게도 땅을 받치라고 할 것이다.)
- (22) 魯君賜之玉環, 壬拜受之而不敢佩, 使豎牛請之叔孫. 30.13.10

(노나라 왕이 그(중임)에게 옥환을 하사했는데 중임은 그 것을 배수하고도 감히 패용하지 못하고 수우를 시켜 숙손에게 그 일(허락)을 청하게 하였다.)

### 3.1.1.5 稱謂類

동사가 稱謂, 呼稱, 命名 등의 의미를 표시하는데, 술어동사는 間目を 直目으로 稱함을 표시한다. 間目は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고, 直目は 불려지는 사람, 사물, 대상,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한다.

- (23) 此非功伐之論也. 選其心之所謂賢者也. 38.9.3  
(이 것은 功伐의 논의 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른 현인을 발탁하라는 말이다.)
- (24) 故“服文采, 帶利劍, 厭飲食, 而貨資有餘者, 是之謂盜筭矣.” 20.36.54  
(그러므로 “화려하고 사치스런 비단옷을 입고, 허리에는 예리한 검을 차고, 물릴 만큼 먹고 마시며, 그리고도 재물이 남음이 있는 자, 이들을 가리켜 도우(도둑의 괴수)라 일컬을 것이다.)
- (25) 赦死宥刑, 是謂威淫. 4.2.18  
(죽을죄를 사면하거나 처벌을 면하게 해 주는 것을 위음이라고 한다.)
- (26) 而樹私利其間, 此謂“養殃”. 9.1.59  
(자신의 욕심과 사사로운 이득을 채우려는 속셈이 숨겨져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양양이라고 한다.)
- (27) 全壽富貴之謂福. 20.10.19  
(건강하고 장수하며 부귀영광을 누리니 이를 복이라 할 것이다.)
- (28) 目不能決黑白之色則謂之盲. 20.15.21  
(눈이 흑백의 색을 구분할 수 없으면 곧 장님이라 부른다.)
- (29) 師曠曰: “此所謂清商也.” 10.5.67  
(사광은 “이 곡이 바로 청상지곡입니다.”라고 대답했다.)
- (30) 人臣之所毀者, 人主之所非也, 此之謂同舍. 14.1.14  
(신하가 비방하는 것이 곧 군주가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과 일치한다면 이를 동사(버리는 것이 같다)라고 이른다.)

### 3.1.1.6 使役類

二重目的의 語文도 使動用法으로 쓰여, 사역을 의미를 표시할 수 있

는데, 주어가 間目으로 하여금 直目を 지배하도록 동작을 시행한다. 동사자체의 의미로는 사역의 의미가 약하고 문장 안에서 도움을 받아 판별된다.

- (31) 君其出令, 令民自遺三年之食, 有餘粟者入之倉. 10.6.81  
 (왕께서는 지금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은 자신들이 삼년간 먹을 양식만을 남기고 곡식이 남는 자는 그것을 관의 창고로 들일(날라울) 것입니다.)
- (32) 遺三年之用, 有餘錢者入之府. 10.6.83  
 ((돈도) 삼년간 쓸 현금만을 남기고 돈이 남는 자는 그것을 관으로 들일(가져올) 것이다.)
- (33) 吾欲輔重耳而入之晉, 何如? 10.11.58  
 (중이를 도와 그를 진으로 들게 하려는데(왕위에 오를 수 있게 돕는 것을 가리킴) (여러 중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오?)

예문(31)-(33)은 〈主語+動詞+間目+直目〉으로 二重目的語文의 전형적인 형식과 차이가 없으며, 間目 '有餘粟者', '有餘錢者', '重耳'가 앞에 전제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代替詞 '之' 대치하고 있다. 이들 문형은 '使之入倉', '使之入府', '使之入晉'으로 각각 변환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겸어문의 형식과 같으며, 모두 사역의 의미를 표시한다.

《韓非子》에서는 '入' 동사 1개와 예문 3개만이 보이는데, 使役類 用途의 이해를 위해 참고적으로 다른 책의 예문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34) 我有圃, 生之杞乎? (左傳·昭公二十年)  
 (제게 채소밭이 있는데 그 곳에서 소태나무를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 (35) 晉侯飲趙盾酒. (左傳·宣公二十年)  
 (晉侯는 趙盾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다.)

### 3.1.2 構造

술어는 단음절어의 타동사가 단독으로 사용되고, 복음절어의 동사가 사용된 예는 보이지 않는다. 동사 앞에 부사 '乃, 將'이 위치

하여 동사가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문형이 출현한다.

- (36) 晉獻公伐虢，虢，乃遺之屈産之乘，垂棘之璧，女樂六，以榮其意而亂其政. 31.54.1  
 (진헌공이 우와 꾀을 정벌하고자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에 굴산의 명마, 수국의 보옥 무희 열 여섯 명을 보내어 우왕의 마음을 미혹되게 함으로써 그 나라의 정치를 어지럽게 하였다.)
- (37) 君曰：“洋.” 乃與之萬戶之邑. 22.8.28  
 (위 선자는 “그대 말이 옳소” 하고는 그(지백)에게 만호의 읍을 주었다.)
- (38) 與之彼玃，又將請地他國. 10.6.16  
 (왕께서는 그에게 땅을 주십시오. (주게 되면 이것이 버릇이 되어) 또 다른나라에게도 땅을 받치라고 할 것입니다.)

### 3.2 間接目的語

#### 3.2.1 意味

間目は ‘之，汝，令，我，衛君，大夫種，荊王，哀公，燕相，蘇代，魏，紂，厲王，武王，子罕，其君，子之，仇人，二子者，人，二人，其所憎者，其所愛者，燕王，子，魏王，其主，客，吏，貧窮’ 등이 보이는데 대부분 사람을 의미하며, 사물을 표시하는 ‘魏’ ‘他國’ 이 그 예로 보인다.

- (39) 魏王遺荊王美人，荊王甚悅之. 31.28.23 (인명)  
 (위왕이 초왕에게 미녀를 보내니 초왕이 아주 기뻐하였다.)
- (40) 與魏質以安其心，從韓而伐趙. 2.3.5 (지명)  
 (魏나라에게 볼모를 주어 그 마음을 안심시키고 韓과 연합하여 趙를 공격하였다)
- (41) 與之彼玃，又將請地他國. 10.6.16 (사물)  
 (왕께서는 그에게 땅을 주십시오. 주게 되면 이것이 버릇이 되어 또 다른 나라에게도 땅을 받치라고 할 것입니다.)

#### 3.2.2 構造

間目 쓰이는 品詞와 언어단위로는 名詞, 代替詞가 쓰이며, 대부

분 명사가 단독으로 사용되었다.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형태의 名詞句도 출현한다.

### 3.2.2.1 名詞

- (42) 太宰鮪遺大夫種書. 31.19.13  
 ((오나라의) 太宰 鮪는 大夫 種에게 서신을 보냈다.)
- (43) 君何不迎之以重祿高位, 遺哀公女樂以驕榮其意. 31.51.6  
 (임금께서 어찌하여 그(공자)를 후한 봉록과 높은 작위로 영접하고, 노나라 哀公에게 무희와 음악을 보내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시지 않으십니까?.)
- (44) 故襄疵言襲鄴, 而嗣公賜令蒞. 31.8.11  
 (그래서 (魏나라의) 襄 疵는 (趙王이) 鄴을 습격하리란 정보를 알렸고, 嗣公은 縣令에게 자리를 하사하였다.)
- (45) 王因收吏徒. 35.12.30  
 (왕은 따라서 관리들에게서 인신을 회수하였다)
- (46) 文公受客皮. 21.2.2  
 (진문공은 손님에게서 (귀한 예물인) 가죽을 받았다.)
- (47) 與貧窮地以資無資. 50.3.3  
 (빈민에게 토지를 주어, 재산이 없는 사람을 건설하게 한다.)

예문(42)-(43)은 固有名詞가, 예문(44)-(46)는 普通名詞가 각각 쓰인 예이다. 예문(47)의 ‘貧窮’은 추상명사이지만 문장에서는 ‘빈민’이란 뜻으로 보통명사로 전용된 예가 하나 출현한다.

### 3.2.2.2 名詞句

‘所’字句로 명사화된 형태와 관형어의 수식의 받는 문형이 보인다

- (48) 伯樂教其所憎者相千里之馬, 教其所愛者相驂馬. 23.5.1-2 (2개)  
 (백락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에는 천리준마를 감별하는 법을 가르쳤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노마를 감별하는 법을 가르쳤다.)
- (49) 果收文子後車二乘而獻之其君矣. 23.23.17  
 (과연 뒤따라 오던 두대의 수레는 진의 군주에게 받쳐졌다.)

3.2.2.3 代替詞

1) 人稱代替詞

人稱代替詞로는 '我, 汝, 子'가 사용되고 있다.

- (50) 故今有於此, 曰: “子汝天下而殺汝身.” 庸人不爲也. 30.24.14  
 (가령, 어떤 사람에게 “너에게 천하를 줄테니 너의 목숨을 달라”라고 한다면 용렬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 (51) 某時有客過而所, 與汝金, 而汝因遺之. 30.57.6  
 (某日 어떤 객상이 네가 관리하는 곳을 지나갔는데, 너에게 황금을 주니, 너는 이로 인해 그를 보내 주었다.)
- (52) 吾好佩, 此人遺我玉環. 23.23.12  
 (내가 패옥을 좋아하니, 사람들이 나에게 옥환을 보내 주었다)
- (53) 苟息曰: “彼不假我道, 必不敢受我幣. 10.3.15  
 (순식은 “저들이 우리에게 길을 빌려 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의 선물을 감히 받지 않을 것이다.)

2) 指示代替詞

특히 대체사 '之'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 (54) 虞公弗聽, 遂假之道. 10.3.37  
 (虞公은 듣지 않고, 그에게 길을 빌려주었다.) 10.3.37
- (55) 已而啓與友黨攻益而奪之天下. 35.12.57  
 (후에啓는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益을 공격하고는 그에게서 천하를 빼앗았다.)
- (56) 子之田宅. 32.39.23  
 (그에게 밭과 집을 주었다.)
- (57) 門者別跪請曰: “足下無意賜之餘澁乎?” 31.25.5  
 (문지기가 잘린 발로 무릎을 꿇고서 그에게 말했다. “나리께서는 남은 술을 저에게 좀 내려 주실 뜻이 없으십니까?”)
- (58) 孔子御坐於魯哀公, 哀公賜之桃與黍. 33.18.1  
 (공자가 魯 哀公을 모시고 앉았는데, 애공은 그에게 복숭아와 기장밥을 주었다.)

### 3.3 直接目的語

#### 3.3.1 意味

直目は 地, 天下, 金, 百金, 報決, 玉環, 上宅 · 上田, 上田宅, 蓆, 餘瀝, 席, 桃與黍, 女樂, 羹, 鳴琴, 玉環, 書, 食, 美人, 女樂, 屈産之乘, 蓆, 國書, 金百鎰 質, 爲靡樂之靡, 分國, 萬戶之邑, 五乘, 天下, 地, 其, 事, 國, 斧, 道, 資, 魚, 萬家之縣一, '爲靡樂之靡' 등이 보이는데 거의가 사물을 표시하며, 사람('美人')을 표시한다.

- (59) 魏王遺荊王美人, 荊王甚悅之. 31.28.23 (사람)  
 (위왕이 초왕에게 미녀를 보내니 초왕은 그 일을 아주 기뻐하였다.)
- (60) 君賜之玉環, 壬已佩之矣. 30.13.20 (사물)  
 (군주는 그에게 옥환을 하사하였는데, 중임은 벌써 그것을 차고 있었다.)
- (61) 此師延之所作, 與紂爲靡靡之樂也. 10.5.49 (사물)  
 (이것은 (옛날 주왕의 악공인) 사연이 지은 것인데, 주왕에게 퇴폐를 행하는 음악을 바친 것이다.)
- (62) 未語, 而君與之食. 22.33.4 (행위: 동사의 명사 전용)  
 (아직 말이 하지 않았는데, 왕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 3.3.2 構造

直目に 쓰이는 품사로는 대다수 명사가 출현하고, 「관형어+명사」의 형식과 명사가 병렬된 구조가 보인다. 동사, 동사구, 주술구가 사용된 예도 출현하는데 모두 그 의미가 명사로 전용된 것이다.

##### 3.3.2.1 名詞

###### 1) 普通名詞

- (63) 中山之君烹其子而遺之羹, 樂羊坐於幕下而啜之, 盡一杯. 22.22.3  
 (중산의 임금의 아들(중)을 삶아서 국을 만들어 그(樂羊)에게 보

냈다. 樂羊은 막사 안에 앉아 그 것을 맛보다가 한 그릇을 다 먹었다.)

- (64) 吾好佩, 此人遺我玉環: 23.23.12  
(나는 패옥을 좋아하니,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옥환을 보냈다.)
- (65) 太宰鮪遺大夫種書. 31.19.13  
(오나라의 太宰 鮪는 (은밀하게) 大夫 種에게 글을 보냈다.)
- (66) 縣令發尊而席弊甚, 嗣公還令人遺之簾. 31.59.3  
(현령이 자리를 펴니 몹시 낡아 있었다. 사공은 돌아와 사람을 보내 그에게 자리를 하사하였다.)
- (67) 君曰: “諱.” 乃與之萬戶之邑. 22.8.28  
(위 선자는 “그대 말이 옳소” 하고는 그(지백)에게 만호의 읍을 주었다.)

## 2) 抽象名詞

- (68) 州吁果殺其君而奪之政. 31.41.4  
(州吁는 결국 그의 임금을 시해하고, 그에게서 정권을 탈취하였다.)
- (69) 田恒因行私惠以取其國, 遂殺簡公而奪之政. 31.45.4  
(田恒은 사적인 은혜를 베풀어 그 나라를 얻었는데, 끝내 簡公을 시해하고 그에게서 정권을 탈취하였다.)

### 3.3.2.2 名詞句

#### 1) 「冠形語+名詞」

- (70) 門者別跪請曰: “足下無意賜之餘澁乎?” 31.25.5  
(문지기가 있다가 잘린 발로 무릎을 꿇고서 그에게 말했다. “나리께서는 남은 술을 저에게 좀 내려 주실 뜻이 없으십니까?”)
- (71) 吾嘗好音, 此人遺我鳴琴. 23.23.10  
(내가 전에 음률을 즐겼을 때 그는 나에게 울리는 거문고를 보내 주었다.)
- (72) 晉獻公伐虞·虢, 乃遺之屈產之乘, 垂棘之璧, 女樂六, 以榮其意而亂其政. 31.54.1  
(진헌공이 우와 곽을 정벌하고자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에 굴산의 명마와 수국의 보옥, 그리고 무희 여섯 명을 그에게 보내어 그(우왕)



의 마음을 미혹되게 함으로써 그 나라의 정치를 어지럽게 하였다.)

(73) 客有教燕王爲不死之道者，王使人學之，所使學者未及學而客死。

32.15.1

(객이 연왕에게 장생불사의 도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자 왕은 사람을 보내 배우게 했는데 학인들이 배움을 얻기도 전에 객이 죽었다.)

(74) 君曰：“善。”乃與之萬戶之邑。 22.8.28

(위 선자는 “그대 말이 옳소” 하고는 그(지백에게 만호의 읍을 주었다.)

(75) 因封二子者各萬家之縣一。 10.6.216

(따라서 그 둘에게 각각 만 호의 현에 봉해 주겠다.)

예문(70)-(71)은 동사가 형용사로 전용되어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이고, 예문(72)-(75)는 관형어 표지 ‘之’ 사용되었다.

## 2) 「名詞 + 名詞」

(76) 子之田宅。 32.39.23

(그에게 밭과 집을 주었다)

(77) 有能徙此南門之外者，賜之上田上宅。” 30.32.9

(이 것(수레)을 남문의 밖으로 옮길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에게 좋은 집과 땅을 (상으로) 내리겠노라.)

(78) 君其遺之女樂，以亂其政。 10.7.67

(왕(穆公)께서는 그(戎王)에게 무희와 음악을 보내어 정치를 어지럽게 하십시오.)

(79) 孔子御坐於魯哀公，哀公賜之桃與黍。 33.18.1

(공자가 노 애공을 모시고 앉았는데, 애공은 복숭아와 기장밥을 그에게 주었다.)

예문(76)-(78)은 명사가 병렬된 것이고, 예문(79)은 병렬을 표시하는 접속사 ‘與’가 사용된 예이다.

### 3.3.2.3 動詞

(80) 襄主曰：子之教我御，術未盡也？ 21.18.4

(襄主는 선생은 나에게 수레 모는 것을 가르치셨는데, 기술을 완전히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셨지요? 라고 말했다.)

(81) 今子欺之, 是教子欺也. 32.56.15

(지금 그대가 그를 속이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속임수를 가르치는 것이다.)

위의 예문에 사용된 直目은 품사적인 성분으로는 동사로 상용되는 단어이지만 문장에서는 명사로 전용된다.

### 3.3.2.4 動詞句

(82) 願陛下幸復察圖之, 而賜臣報決. 2.8.67

(원컨대 폐하는 그 것을 다시 한번 살피서, 신에게 회답을 주십시오.)

(83) 公入室, 請與之分國, 崔子不許. 14.8.40

(장공은 내실에 들어갈 때(장공을 공격하였는데) 장공은 최자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애원하였으나 최지는 허락하지 않았다.)

대부분 動目句의 형태가 출현한다. 예문(82)은 동사가 병렬된 형태이고, 예문(83)은 動目句의 형태이다.

## 4. 型式上的 分類

### 4.1 基本型式

二重目的語文의 일반적인 기본구조는 술어동사의 뒤에 <問目+直目>의 어순이 온다. 가장 常用되는 형식으로 거의 대부분의 二重目的語文은 기본형식을 취한다.

基本型式 : 主語 + /動詞 + /問目 + /直目

(84) 君/賜/之/玉璫, 壬已佩之矣. 30.13.20

(군주가 그에게 옥환을 하사하였는데, 증임은 이미 그것을 차고 있었다.)

- (85) 太宰鮪/遺/大夫種/書. 31.19.13  
 (오나라의 태재 비는 대부 문종에게 서신을 보냈다.)  
 (86) 因封/二子者/各萬家之縣. 10.6.216 (주어생략)  
 (그 둘에게 각각 만호의 현을 봉해 주겠다고 하십시오.)

## 4.2 變形型式

### 4.2.1 直接目的語의 前置

주어와 술어동사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목적어의 구조가 〈直目+問目〉의 형식을 취하는 예문이 발견되는데, 현대문형에서는 쓰이지 않는 형식이지만 고대 문형에서는 자주 출현하는 형식이다.

變形型式 1 : 主語+/動詞+/直目+/問目

- (87) 殷之法. 刑棄灰於街者. 子貢以爲重. 問/之/仲尼. 30.21.4  
 (殷나라 법에는 길거리에 재를 버리면 벌을 받는다고 한다. 子貢은 (이것이) 너무 엄하다고 생각하여, 그 일을 仲尼에게 물었다.)  
 (88) 夫至乎誅諫者必傳/之/舜. 乃其難也.” 34.24.16  
 (그것(천자의 지위)을 반드시 舜에게 전하려는데 있어서 諫言한 신하들을 처벌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89) 楚人和氏得玉璞楚山中, 奉而獻/之/厲王. 13.1.2  
 (초나라 사람 화씨가 초산에서 옥돌을 얻어 여왕에게 그것을 가져다 바쳤다.)  
 (90) 今王欲傳/之/子之. 35.11.61  
 (왕은 자자에게 그것(나라)을 전하려고 하였다.)

變形型式 2 : 主語+/直目+/動詞+/問目

직접목적어가 동사 앞에 위치하여 直目+動詞+問目的 형식을 이루는 예가 하나 보인다.

- (91) 彼來請地而弗與, 則移兵於韓必矣. 君/其/與/之. 10.6.14  
 (그가 와서 땅을 요구하는데, 주지 않으면 한나라로 병력을 이동할 것이 틀림없으니 왕은 그에게 땅을 주십시오.)

## 4.2.2 間接目的語의 前置

稱謂의 의미를 표시하는 문형에서 固定形式으로 나타난다.

주어 (생략)	間目	間目的 複指成分	動詞 '謂'	直目
	是 此	×		
	是 此 名詞	之 之		

間目は 전체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내용(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킨다. 즉 間目は 앞 문장에서 이미 출현한 주어와 뜻이 같으므로, 間目を 전치하여 강조하게 된다. 중국어에서 주어와 술어가 문장의 핵심이라고 할 때, 이는 주어가 二重目的語文의 間目 前置라는 방법으로 강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是謂' '此謂'의 형식은 間目を 지칭하는 내용이 직접 나오고, 이를 '此' 나 '是' 로 대치하고 있다.

- (92) 敕死宥刑. 是/謂/威淫. 4.2.18  
(죽을죄를 사면하거나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을 위음이라고 한다.)
- (93) 若天若地. 是/謂/累解. 8.7.6  
(하늘과 대지 같은 곳을 누해라 한다.)
- (94) 能象天地. 是/謂/聖人. 8.7.10  
(고원한 하늘과 광활한 대지를 닮을 수 있으면, 성인이라 할 수 있다.)
- (95) 去此更求. 是/謂/大惑. 8.7.24  
(이러한 지술을 버리고 달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대혹이라 한다.)
- (96) 此/謂/劫殺死亡之主言也. 14.8.7  
(이 일은 (아래 신하들에게) 시해당해 죽은 군주를 일컫는 말이다.)
- (97) 此/謂/三守不完. 16.1.26  
(이것은 군주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점을 설명한 것이다.)
- (98) 此/謂/國無臣. 16.2.16  
(이것은 나라에 신하가 존재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是之謂', '此之謂'의 형식은 間目이 술어 '謂' 앞으로 전치되며,

대체사(代詞) ‘之’를 사용하여, 전치된 間目を 複指하고 있다. 문장의 주어와 間目は 같은 내용을 가리키므로 ‘此’ 또는 ‘是’로 대치하고 있다.

- (99) 故“服文采，帶利劍，厭飲食，而貨資有餘者，是之謂盜竈矣。” 20.36.54  
 (“화려하고 사치스런 비단옷을 입고, 허리에는 예리한 검을 차고, 물릴 만큼 먹고 마시며, 그러고도 재물이 남음이 있는 자, 이것을 도우(도둑의 괴수)라 일컬을 것이다.”)
- (100) 今人臣之所譽者，人主之所是也，此之謂同取。 14.1.11  
 (신하가 칭찬하는 바가 곧 군주가 옳다는 것과 일치한다면 이를 동취(취하는 것이 같다)라 이른다.)
- (101) 人臣之所毀者，人主之所非也，此之謂同舍。 14.1.14  
 (신하가 비방하는 것이 곧 군주가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과 일치한다면 이를 동사(버리는 것이 같다)라고 이른다.)
- (102) 故主必欺於上，而臣必重於下矣，此之謂擅主之臣。 14.1.25  
 (이렇게 되면 위에서는 군주가 속임을 당하고 신하는 아래에서 중임을 받으니 이를 천주지신(군주를 밑에서 조종할 수 있는 신하)라 부른다.)
- (103) 以隙穴之臣而事獨立之主，此之謂危殆。 27.6.11  
 (집에 구멍을 내듯이 해만 끼치는 신하가 누구의 도움도 얻지 못하는 군주를 보필한다면 이것을 危殆라 이른다)

‘之謂’의 형식은 앞 문장에 출현한 주어와 뜻이 같은 間目인 ‘此’나 ‘是’로 대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間目的 내용이 출현하고 ‘之’는 앞에 출현한 間目的 複指成分이다.

- (104) 殺戮之謂刑，慶賞之謂德。 7.1.7  
 (사형에 처하는 것, 그것을 형이라 하고, 치하하고 상주는 것, 그것을 덕이라 한다.)
- (105) 身全之謂德。 20.1.9  
 (인격이 완성된 것 그것을 덕이라 부른다.)
- (106) 德盛之謂上德。 20.2.18  
 (덕성이 완성되는 것 그 것을 상덕(최상의 덕을 갖춘 사람)이라 부른다.)
- (107) 先物行先理動之謂前識。 20.8.1

(사물의 운행과 이치의 움직임은 먼저하는 것 그것을 전식(선입관)이라 한다.)

### 4.3 有關 型式

이중목적어문의 有關型式이라 함은 비록 이중목적어문과는 다른 통사구조로 구성되지만 型式上 대단히 유사한 문형을 말하는데, 전치사 ‘以’와 결합하여 부사어의 형태로 출현하거나 ‘於’와 결합하여 보어의 형태로 출현한다.

#### 4.3.1 ‘以’ 前目句

##### 4.3.1.1 〈主語+動詞+間目+‘以’+前目句〉

‘以’ 前目句는 문장에서 補語로 쓰이지만 前置詞의 목적어는 二重目的語文의 直目에 해당한다.

- (108) 昔者吳起教楚悼王以楚國之俗……13.3.1  
(예전에 吳起는 楚나라 悼王에게 楚 왕실의 풍속을 지적해서 말하기……)
- (109) 所說出於厚利者也，而說之以名高，則見無心而遠事情，必不收矣。12.2.1  
(설득하려는 상대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에게 명예를 이야기한다면, 현실에 어두운 자라고 여겨져 필시 거두어지지 않을 것이다.)
- (110) 晉獻公將欲襲虞，遺之以璧馬。21.9.13  
(진나라 현공은 虞나라를 장차 치고자 하여, 그들에게 보옥과 준마를 선물하였다.)
- (111) 知伯將襲仇由，遺之以廣車。21.9.15  
(지백은 仇由 땅을 공격하고자 하여, 그들에게 전차를 보냈었다.)
- (112) 周公且假爲天子七年，成王壯，授之以政。37.11.16  
(周公 旦은 7년간동안 천자노릇을 대신하다 성왕이 장성하자 그에게 천자의 지위를 넘겨주었다.)

- (113) 商君教秦孝公以連什伍. 13.3.13  
 (상군은 진효공에게 백성들을 다섯 호 혹은 십 호를 단위로 묶으  
 라고 했다.)

#### 4.3.1.2 <主語+‘以’+直目+動詞+問目>

‘以’前目句는 술어동사 앞에 위치하여 부사어로 사용되나 前置詞의 目的語는 二重目的語문의 直目に 해당한다.

- (114) 以吳子越, 再拜受之, 不可許也. 31.19.10  
 (오나라를 월나라에 주려 것이니 재배하며 그것을 받아야지 (그  
 의 청원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 (115) 荊王大說, 以鍊金百鎰遺晉. 23.35.39  
 (초왕은 크게 기뻐하여 순금 백일을 진나라에 보냈다.)
- (116) 乃令黎且以女樂六遺哀公. 31.51.14  
 (그리하여 黎且를 시켜 무희 여섯을 노나라 애공에게 보냈다.)
- (117) 堯以天下讓許由. 23.15.1  
 (요임금이 허유에게 천하를 양위하려 하였다.)
- (118) 王不如以國讓子之. 35.12.2  
 (대왕께서는 나라를 자자에게 양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4.3.2 ‘於’前目句

型式 : <主語+動詞+直目+‘於’+前目句>

‘於’前目句는 補語로 쓰이지만 前置詞의 목적어는 二重目的語文의 問目に 해당한다.

- (119) 桓公問置吏於管仲. 33.28.1  
 (齊桓公은 管仲에게 관리들을 안배하는 것을 물었다.)
- (120) 宰子不免於田常. 3.2.50  
 ((언변이 뛰어난) 재여도 전상의 화를 벗어나지 못했다.)
- (121) 湯殺君而欲傳惡聲於子, 故讓天下於子. 22.1.7  
 (탕왕이 임금을 죽여 놓고 선생에게 그 오명을 전가 하고자 하  
 여, 그래서 천하를 그대에게 양위하겠다는 것이다.)

- (122) 人所以謂堯賢者，以其讓天下於許由。 35.12.4  
 (사람들이 요임금은 현명하다 일컫는 것은, 그가 천하를 허유에게 양위하고자 했던 일이 때문이다.)
- (123) 康子曰：“諾。”因令使者致萬家之縣一於知伯。 10.6.24  
 (강자는 ‘그렇게 하라’ 말했다. 이에 사자를 시켜 만 호의 현 하나를 지백에게 바치게 했다.)
- (124) 寡人不佞而問道於子。 10.7.11  
 (과인은 우매함을 감추지 않고 그대에게 도를 물었다.)
- (125) 齊宣王問於唐易子。 34.16.17  
 (제 선왕이 당이자에게 활로 새를 쏘는 일을 물었다.)
- (126) 舜禪天下而傳之於禹。 10.7.30  
 (순임금이 천하를 우임금에게 전하였다.)

‘於’ 前目句가 二重目的語文의 間目에 해당될 경우, 이를 앞에서 설명한 변형형식과 비교해 볼때 直目이 전치되면서 間目を 명시하기 위해 사용된 용법이라 할 수 있다.

- (127) 今王信愛子之，將傳國子之。 35.12.24  
 (지금 대왕께서는 분명 자지를 총애하시며 그에게 옥좌를 전위하려 합니다.)
- (128) 燕王欲傳國於子之也。 35.12.48  
 (연왕이 나라를 자지에게 양위 하고자 하였다.)

예문(127)은 直目이 間目앞으로 전치된 형식인데, 예문(128)과 비교해 보면 전치사 ‘於’만 부가되었을 뿐이며, 오히려 예문(127)보다 ‘與事’인 수여대상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於’ 動目句는 피동문에서 행위자를 표시하는 성분으로도 사용되는데, 이때 前置詞의 목적어는 이중목적어문에서 間目에 해당한다.

- (129) 地曾不可得，乃取欺於亡國。是謀臣之拙也。 1.4.52  
 (땅도 얻지 못하고, 망국(趙나라)에게 속임만 당했으나, 이것은 신하들이 용렬한 탓이다.)
- (130) 孫子胠脚於魏。 3.2.37  
 (孫子は 魏나라(사람들)에 의해 다리가 잘리었다.)
- (131) 晉公失之於六卿，而邦亡身死。 21.8.7  
 (晉公은 六卿에게 그것(왕위)을 잃게 되어, 나라가 망하고 자신



도 죽게 되었다)

### 5. 結語

동사가 표시하는 동작·행위는 그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지배하게 되므로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전체 文意를 정확히 파악하는 첩경이다.

고대 중국어의 이중목적어문이 현대에 대부분 이어져 사용되고 있지만, 나름대로 특수한 몇몇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당시의 언어현상을 짐작하게 한다

이제 본고에서 살펴 본 결과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韓非子》에서 출현하는 二重目的語文의 의미별 사용빈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意味別 使用頻度)

	授與類										計
動詞	予	賜	遺	與	授	獻	傳	假	致	封	10개
回數	5	9	13	10	1	4	2	8	1	2	55
%	8.9	17.9	23	17.9	1.8	7.1	3.6	14.3	1.8	3.6	100

	告示類				計	奪取類				計
動詞	告	教	問	言	4개	奪	得	受	收	6개
回數	1	5	1	1	9	6	2	3	2	13
%	12.5	62.5	12.5	12.5	100	45.1	14.5	18.6	14.5	100

	要請類		計	稱謂類		計	使役類		計
動詞	請		1개	謂		1개	入		1개
回數	3		3	159		159	3		3
%	100		100	100		100	100		100

二重目的語文임을 알 수 있는 것은 述語動詞인데, 위의 표와 같이 동사는 22개가 사용되고 있다. 사용빈도 면에서는 전체 二重目的語文 242개중 授與類는 32.9%, 告示類는 4.17%, 奪取類는 9.4%, 稱謂類는 75.3%, 使役類는 2.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稱謂類가 높은 사용빈도를 가지는 것은 《韓非子》의 서술방식에서 起因한 것으로 보인다. 즉 《韓非子》는 논변체 문장으로 많은 比喻, 故事, 典故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의 내용을 다시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사용상의 특성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논변체 문장이 아닌 다른 문헌에서 二重目的語文의 稱謂類 동사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지는 좀 더 고찰이 필요하다. 이 점을 제외하면, 《韓非子》의 二重目的語文은 授與類가 가장 많이 쓰였다고 할 수 있고, 奪取類, 告示類 순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使役類는 사용빈도 적은데 이는 사역의 표현이 兼語文 또는 동사의 사동용법을 통해 의미를 더욱 잘 표현되할 수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韓非子》에 사용되고 있는 二重目的語文의 形式과 使用頻度を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基本形式:

① 〈主語+動詞+問目+直目〉 70回 29%

變形形式:

② 〈主語+動詞+直目+問目〉<sup>13)</sup> 13回 5%

③ 〈(主語)+問目(‘是/此’)+謂+直目〉 34回 14%

④ 〈(主語)+問目(‘是/此’)+‘之’+謂+直目〉 23回 10%

⑤ 〈(主語)+問目+‘之’+謂+直目〉 41回 17%

⑥ 〈(主語)+問目+謂+‘之’+直目〉 61回 25%

基本形式은 가장 많이 출현하고 있는데, 代替詞가 사람을 표시하는 경우에 모두 기본형식으로 출현한다. ‘獻, 傳, 言, 問, 請’이 사용될 경우에는 모두 변형형식인 ②의 형식을 취하는데, 授與物의 내용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인다. ③-⑤는 稱謂義 動詞 ‘謂’가 사용된 경우인데, 固定句의 形式으로 출현한다.

《韓非子》에서 출현한 고대 중국어의 二重目的語文의 형식중 ②-⑤는 현대 중국어에 보이지 않는 형식이다<sup>14)</sup>. 지금의 관점으로 보

13) 〈主語+直目+動詞+問目〉型式 포함

14) 현대 중국어에서 問目 및 直目を 전치하려면, ‘給’ 동사나 ‘把’를 사용한다.

면 이는 특수한 용법이라 할 수 있지만 고대 중국어에서는 자주 출현하는 형식이지만 언어의 발전과 변천 과정 중에 도태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서언에서 밝혔듯이 이론의 토의보다는 검증과 검토의 성격을 갖는다. 본 연구와 같은 共時的 研究가 좀 더 진행되어 이중목적어문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通時的으로 고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邵增樺 註譯, 《韓非子今註今譯修訂本》上下, 商務印書館, 1992, 臺北
- 周鍾靈·施孝適·許惟賢 主編, 《韓非子索引》, 中華書局, 1982, 北京
- 陳奇猷 撰, 《韓非子集釋》, 復文圖書出版社, 1991, 臺北
- 董治國 編著, 《古代漢語句型大全》, 天津古籍出版社, 1988
- 馬 忠, 《古代漢語語法》, 山東教育出版社, 1983
- 申小龍, 《中國句型文化》,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88, 長春
-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1992
- 黎錦熙, 《新著國語文法》, 臺灣商務印書館, 民國58年
- 王 力, 《漢語史稿》, 《王力文集 第九卷》, 中華書局, 1988
- 王 力, 《漢語語法史》, 《王力文集 第十一卷》, 中華書局, 1990
- 易孟醇, 《先秦語法》, 湖南教育出版社, 1989, 長沙
- 任炳權, 《孟子的 虛詞 以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7
- 尹上林, 《《史記》 被動文 類型研究》, 延世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9
- 陳惠茵, 《韓非子板本研究》, 臺灣師範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劉 誠, 《〈韓非子〉構詞法初探》, 《語言文字學》, 1985.4
- 曾仲珊, 《古漢語中動詞的使動用法》, 《中國語文》, 1980年 第4期
- 吳仁甫, 《使動·意動研究綜述》, 《語言文字學》, 1985.11

- 劉心用,〈使動句格位次序初探〉,《語言文字學》,1985.12
- 呂慶業,〈試論古漢語的雙賓結構〉,《語言文字學》,1985.2
- 何樂士,〈先秦「動·之·名」雙賓式中的“之”是否等於“其”〉,何樂士,  
《〈左傳〉虛詞研究》,商務印書館,1989,北京
- 馬慶株,〈現代漢語的雙賓語構造〉,北京大學中文科《語言學論叢》  
編委會編,《語言學論叢》第10輯,商務印書館,1983
- 余志鴻,〈試談漢語裏的雙賓語〉,上海市語文學會編,《語文論叢》  
1983年2期
- 貝羅貝,〈雙賓語結構從漢代至唐代的歷史發展〉,《中國語文》,  
1986年 第3期
- 饒長溶,〈動賓組合帶賓語〉,《中國語文》,1985年 第6期
- 湯廷池,〈直接賓語與間接賓語〉,《國語語法研究論集》,臺灣學生  
書局,民國68年
- 錢小運·吳金華,《古漢語概要》,江蘇人民出版社,1983
- 許仰民 編著,《古漢語語法》,河南大學出版社,1988